

농가 경영분화의 유형과 특성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사례연구-*

남기포**

< 차 례 >	
<p>I. 서론</p> <p>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p> <p>2. 조사지역개관</p> <p> 1) 일반적 특성</p> <p> 2) 인구 및 가구특성</p> <p> 3) 농업경영</p> <p>II. 농가 경영분화에 따른 유형구분</p> <p>III. 농가분화의 요인</p>	<p>1. 농업노동력구조</p> <p>2. 농업기계화</p> <p>3. 겸업화</p> <p>IV. 농가유형의 성격과 특성</p> <p> 1. 가구의 일반적 특성</p> <p> 2. 농업노동력 조달양식</p> <p> 3. 농업경영</p> <p>V. 요약 및 결론</p>

主要語 : 농업노동력, 농업기계화, 농가유형분화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한 농촌의 해체위기에서 1980년대에 수도작에서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일관기계화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수위탁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농공단지의 육성 등으로 농외노동시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영세소농의 겸업화와 탈농화가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농민층의 대응양식은 개별농가의 생산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전적인 농민층 분화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업 생산력의 격차가 소유경지의 집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생산력의 열위에 있는 겸업농가나 노령농가는 탈농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계화 농가에 의존하여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농민층 분화를 경영의 분화¹⁾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80년대의 새로운 생산력 요소인 일관

기계화의 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가경영의 분화와 적응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농과 탈농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농가분화요인을 살펴보고, 둘째, 가족 농업노동력의 유지와 영농형태에 따라 농가경영의 분화를 유형화하여 농업경영의 특징과 존재양상을 살펴보고, 셋째, 새로운 생산력 요소인 일관기계화체계의 수용과 이에 대한 각 농가유형의 적응양상을 수위탁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 1992년 10월부터 1994년 5월 까지 사례지역을 5차례에 걸쳐서 방문하여 마을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구하였다. 주요 설문항목은 가구의 일반적 사항, 가족 현황, 농업경영과 토지이용, 농작업수위탁 현황 등으로 농가경영주의 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사례지역 농가 61호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제 분석대상 농가는 비영농종사자 4호와 은퇴자 10호를 제외한 47호이다. 보완 자료로서 주민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영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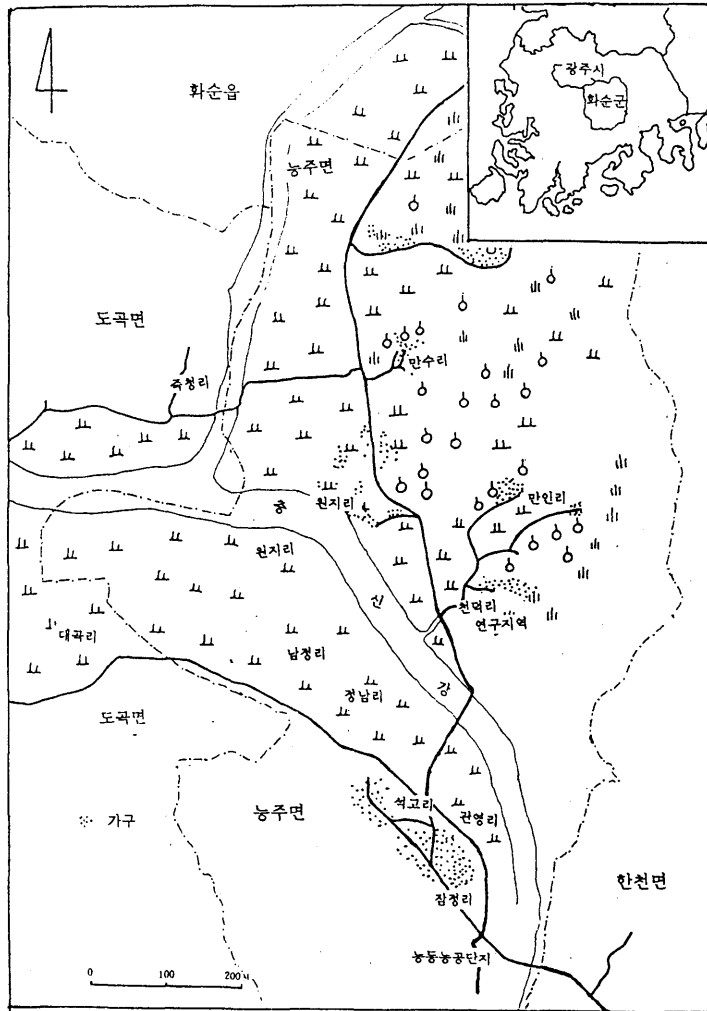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개관도

등록대장, 농지원부, 토지세등록대장 등을 이용하였으나 설문조사를 우선으로 하였다.

2. 조사지역개관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역은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에 위치하는 천덕리 1구 회덕마을이다. (그림 1) 지역선정을 위한 엄격한 기준은 없었지만 도시와의 접근성, 마을의 영농특색, 마을규모를 고려했다. 그것은 도시와 지나치게 근접된 경우 비농업적 토

지이용으로 농업생산이 위축되고 외부 인구의 유입으로 농가분화의 파악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지역은 경관상으로 농업적 특징이 우월하게 나타나고 외부인구의 유입이 거의 없으나 농가경영에 도시적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최대통근권 지역에 해당한다.

능주면은 광주에서 직선거리로 2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자연조건은 연평균기온이 12.6℃, 강우량은 1,300-1,400mm, 토양은 식양토와 사양토로서 농업에 양호한 편이다. 준평야지역으로서

서쪽으로 도곡면, 나주군 남평면으로 이어지는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구룡지역으로 과수원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수리적 조건이 양호하고 경지정리도 다량이 논을 제외하고는 1991년도에 모두 완료되었다.

2) 인구 및 가구특성

연구대상인 천덕리의 가구는 61가구이고, 현거주인은 178명으로 남자가 81명, 여자가 97명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2.92명으로 1991년 전국의 농촌 평균 3.56명보다 크게 낮은 편이며 독신자가구 역시 8가구로 13%를 차지하고 있어 90년 군부 평균 10.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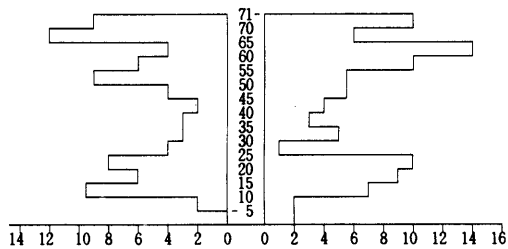


그림 2. 천덕리의 연령별 성별 인구구성

연구지역의 연령별 성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61세 이상이 3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0세이하는 20.8%에 불과하다. 두드러지게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층은 10세미만과 26-45세 층이다. 이는 인구 재생산의 연령층이 유출되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특징은 20-25세 연령층의 일시적인 회귀에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주로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분가 형태의 개별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부 회귀하여 대학교나 직장에 통근하고 결혼을 하면서 다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분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적 성격에 따라 가구를 살펴보면, 농가가 47가구로 77%이고 이중 전업농가가 30호로 49.2%, 겸업농가가 17호로 27.9%를 차지하고 있다. 비농가는 14가구로 이중 농외종사가구는 4명가구이며 노령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은퇴한 가구가 10호이다.

3) 농업경영

연구지역의 평균 경작면적은 0.92ha으로 1991년 전국의 1.23ha보다 낮은 수준이며 평균 소유면적은 0.75ha로 극히 영세하다. 연구지역은 이러한 영세한 농업경영을 극복하기 위하여 70년대 초반부터 복숭아와 참외를 경작하고 있으며 이중 복숭아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30가구로 63.8%, 참외는 11가구로 23.4%가 참여하고 있다.

경작규모별 농지소유별 분포를 살펴보면 0.5ha미만은 19.2%로 전국의 27.4%보다 낮은 편이나 1.0ha미만이 72.4%로 전국의 58.3%보다 높은 편이다. 반면에 1.0-2.0ha의 농가는 17.0%로 전국의 30.2%보다 낮고 2.0ha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10.6%로 전국의 9.5%보다 약간 높게 분포하고 있다. 소유규모분포는 1.0ha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80.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2.0ha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단지 한농가로 2.1%를 점하고 있어 극히 영세한 소유규모로 상당한 임차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지역의 농지 소유 및 경작규모별 분포

(단위: 호, %)

경작\소유면적	무	0-0.5	0.5-1.0	1.0-1.5	1.5-2.0	2.0ha이상	계
무도지							
0.5ha미만	1	7	1				9(19.2)
0.5-1.0		9	14	2			25(53.2)
1.0-1.5		1	2	2			5(10.6)
1.5-2.0			2	1			3(6.4)
2.0ha이상				2	2	1	5(10.6)
계	1(2.1)	17(36.2)	19(40.4)	7(14.9)	2(4.3)	1(2.1)	47(100)

자료: 설문조사

연구지역의 임대차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작농이 23호(48.9%), 임차농이 21호(44.7%), 자임대농이 3호(6.4%)이다. 자작농은 1990년 전국의 56.7%보다 낮은 수준이나 자차농이 29.8%로 전국의 19.7%보다 높고 경영면적의 50%이상을 임차하는 농가(자차농+순임차농)는 14.9%로 전국의 23.8%보다 낮다.

소유규모별 임차농가를 살펴보면 0.5ha미만 농가는 17호중 10호, 0.5-1.0ha농가는 19호중 5호가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반면에 1.0ha이상을 소유한 농가에서는 10호중 5호가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임차농가의 평균 임차면적은 1,148평으로 경영면적 3,476평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규모별 평균 임차면적은 0.5ha미만이 810평, 0.5-1.0ha가 1,720평, 1.0-1.5ha가 2,300평, 1.5-2.0ha가 950평이다. 임차규모는 1,000평미만이 15호이고 3,000평이상은 4호로 소규모 임차농가가 대부분이며 3,000평이상의 농가 중 3호가 농기계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농가이다.

II. 농가경영분화에 따른 유형구분

手塚章(1982)은 대도시 근교외곽지역에서 농가는 크게 농업경영을 강화하는 농가와 농외소득을 강화하는 농가로 구별되지만 농업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풍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립농²⁾이 존재하며 그들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적 특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립농의 경영내용과 형성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농은 주된 수입원이 농업이고, 65세미만의 남자전업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남자전업종사자는 연간 30일이상 겸업에 종사하지 않은 농가로 마을의 농업생산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荒幡克己, 河原昌郎(1988)은 농가의 분화란 농업주체의 운동방향을 보여주고 앞으로의 농업재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농가를 ①토지이용형농가층 ②시설원예·축산주업형농가층 ③안정된 겸업형농가층 ④작업위탁·토지자산형농가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荒本一視(1992)는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되고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에서 농업존속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 농가는 다

양한 형태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겸업의 유형과 후계자의 유무에 따라서 농가를 유형화하여 노동력재생산과 조달양식을 살펴보고 있다.

다양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도시 근교외곽지역에서 단일 관점에서 농가를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농가경제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농업노동력의 보유와 지속성, 그리고 영농형태를 고려하여 유형화 하였다.

농가의 유형은 1차적으로 농가경제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이 50%이하이면 전업농가³⁾, 51%이상이면 겸업농가, 비농가로 나누고 다시 전업농가를 노동력의 보유와 농업후계자의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자가 60세미만이거나 전업농업취업자 60세 이상으로 후계자를 보유한 농가를 자립농가, 전업농업취업자가 60세 이상으로 후계자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노령농가로 구분한다. 다시 자립농가는 영농형태에 따라 수도작전업농가, 복합농가, 시설원예전업농가로 구분한다. 다만,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이 50%미만을 차지하더라도 농업경영자가 61세이상이고 자녀중 농외취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겸업농가에 포함한다.

이상의 기준을 연구지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농가 유형구분의 틀을 제시할 수 있다.

표 2. 농가 유형구분의 틀

영농형태 농가 경제성격		수도작 전업농가	복합농가	시설원예 전업농가
전 업	자립농가	<I-a> 자립수도작농가	<I-b> 자립복합농가	<I-c> 자립시설원농가
	노령농가	<II> 노령농가		
겸업농가		<III> 겸업농가		
비농가		<IV> 비농가		

III. 농가분화의 요인

1. 농업노동력구조

농업노동력은 농업생산력을 규정하는 일차적 요소이며 농업노동의 내용은 농민 생활의 질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농가인구의 선별적 유출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로 농가노동력은 급격한 노령화·여성화의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여성화는 연구지역인 회덕마을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영농종사자수는 90명으로 농가구당 1.91명이며 이는 1991년 전국 2.16명 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 취업구성을 살펴보면, 29세 이하 농업취업인구의 비중은 3.3%로 전국의 5.6%보다 낮은 반면에 60세 이상은 38.9%로 전국의 25.4%보다 극히 높은 편이다. 15-29세 인구의 취업구성을 살펴보면 전체취업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업취업인구는 3.3%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농업취업인구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2.2%로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으며 여성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율도 9가구로 19.2%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농업고용과 피고용 일수 분포를 살펴보면, 농업노동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30가구로 63.8%가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고용일수는 26.4일이다. 고용일수 분포를 살펴보면 20일 이하가 18가구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50일 이상 고용농가는 3가구로 10%에 불과하다. 반면에 농업피고용농가는 8가구로 26.7%, 평균피고용일수는 55.3일이다. 50일 이상 피고용농가가 4가구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동력 조달형태인 품앗이를 살펴보면, 품앗이는 3-5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품앗이 일수는 10일 정도이다. 품앗이에 참가하지 않은 농가가 과반수가 넘어서고 있어 전통적인 노동력조달양식이 와해되고 새로운 노동력조달양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등질적인 노동력 교환형태인 품앗이의 쇠퇴는 농업노동력 구성변화로 농가간 노동력의 질적 차이가 심해지고 기계화의 진전, 상업적 농업의 전개로 농업노동의 변화와 성별·연령별 분화로 농작업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서 작목반, 기계

화영농단 등의 전문적인 영농조직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농조직의 등장이 반드시 주민간의 유대의식을 약화시키는(조영국, 1991)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업적 농업과 작목반 등의 영농조직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농작업외의 농업경영과 유통부분에서 협업적 성격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⁴⁾

조사지역은 대도시근교로 농외취업기회가 풍부하여 젊은층은 농업노동을 기피하고 참외와 고추의 정식이나 수확, 특히 하우스 작업은 아주 힘들어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한 노령층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년층, 특히 주부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⁵⁾

2. 농업기계화

우리나라에서 농업기계화는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농약, 비료, 신품종 보급과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농기술체계의 연장선상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강정일, 강창용, 1989; 윤수중, 1990; 도규만, 1992)

1980년대 중반 이후 수도작부분에서 일관기계화가 추진되면서 대형농기계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대형농기계 중심의 일관기계화는 수지균형면적과 작업면적의 확대로 수위탁관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도작에서 수탁농가의 기간노동과 위탁농가의 관리노동으로 농가간 작업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탁농가의 수도작 전업농과 위탁농가의 수도작이외의 농업과 겸업으로 농가간 경영분화를 가져오고 있다.

연구지역에서 농기계 보급은 1973년 윤○식씨가 경운기를 구입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양과 수확의 기계화 작업은 1982년 능주농협이 농기계조직을 운영하면서 시작되었다. 1984년 농기계조직이 해체되면서 윤○

표 3. 연구지역의 주요 농기계 보급률

(단위: %)

	연도	경운기	트랙터	이양기	바인더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트럭
1993	7	3	3	1	2	10	0	5	
(%)	17.0	6.4	6.4	2.1	4.3	21.2	0	10.6	

자료: 설문조사.

만씨가 중고이앙기를 인수하였고 1985년에 콤바인을 구입하여 임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87년 조사지역에서 기계화영농단을 10명으로 구성하여 트랙터와 콤바인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농단 구성원은 윤○만, 윤○석 2명이었고 8명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며 윤영도 트랙터는 윤○석, 콤바인은 윤○만씨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능주면 천덕리, 원지리, 정남리, 만인리의 영농후계자 5명을 중심으로 기계화영농단을 확대하여 위탁농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수탁농가가 대형농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즉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 영농회사를 설립하면 기계구입자금을 9,060만원까지 보조 50%, 용자 40%, 자비 10%의 조건으로 지원받아 대형농기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전업농가는 2,100만원까지 보조 20%, 용자 70%, 자비 10%로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다. 위탁농회사의 실제적인 운영은 기계화영농단과 마찬가지로 윤○만, 윤○철 2명이 개별적으로 기계를 분할 소유·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역시 농가로부터 개별적으로 위탁받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의 일관기계화체계를 갖추고 능주면 전체와 도곡면 일부를 작업범위로 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에 의해서 작업지역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형농기계의 급속한 보급으로 작업량의 확보가 어려워 후발농가의 일부는 영암군, 강진군 등에서 원정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지역의 농기계보급률은 트랙터, 콤바인은 전국의 보급률보다 높고 이앙기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연구지역의 경지조건이 기계화에 유리하여 효율성이 뛰어난 대형중심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운기보다는 관리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규모가 적어서 조작이 간편하여 힘이 들지 않아 중년 이상의 나이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소규모의 하우스작업과 과수작업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3) 겸업화

최근 농업구조개선의 논의에서 겸업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겸업은 국가의 산업발전 수준, 도시화, 교통발달, 농업 특성에 따라서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서찬기, 1992) 일본에서 겸업에 대

한 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분해=탈농론과 심화=유지론으로 구별된다.(大竹秀則, 1983; 佐藤由子, 1994) 전자는 도농간의 임금격차와 농가간 토지경쟁과 생산력의 격차로 농민층이 전가구원 전업농가→경영주 전업/가구원 겸업농가→전가구원 겸업→이농/탈농으로 진행되는 농민층 분해론의 연장이다. 후자는 농공간의 임금격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가는 농가의 총노동시간을 농업과 겸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농공간의 임금격차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겸업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지역농업조직의 활동에 있으며 농가는 가구주 전업→가구주 전업/영농후계자 겸업→가구주 겸업/영농후계자 전업→가구주 전업으로 순환된다는 것이다.

연구지역에서 겸업은 전계층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위계층은 경영주겸업농가로서 제2종겸업농가가 대부분이며 겸업의 주내용은 농외피고용이다. 조사지역 겸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2세대 가구원의 겸업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농외피고용종사자로서 농작업에는 주말과 농번기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농업종사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2세대의 탈농화와 임노동자화가 농가의 탈농화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농업존속을 위한 농가소득 보충을 위한 불가피한 것인가는 현재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농작업의 수위탁관계와 함께 농업과 농촌유지에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IV. 농가유형의 성격과 존재양상

1. 가구의 일반적 특성

농가는 생산과 소비의 단위다. 농가의 생산과 소비는 농가의 생애주기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직계가족체제가 해체되고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농가는 생성-성장-쇠퇴-소멸이라는 단선적인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가구의 생애주기와 노동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경영주의 나이는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유형별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I-a>자립수도작농가와 <I-c>자립시설원예농가가 각각 44.5세와 44.8세가 가장 젊고 <III>겸업농가와 <I-b>자립복합농가는 각각 50.4세와 55세이고 노령농가가 67.4세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IV>비농가 역시 66.6세로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농가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I-a> 자립수도작농가와 <I-c>자립시설원예농가는 55세 미만으로 30대가 각각 1호가 존재하고 <I-b>자립복합농가는 46세이상으로 50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III>겸업농가는 전연령층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나 36-40세에 4가구와 56세 이상에 5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겸업농가 분포는 최고 대도시근교외곽 지역에서 신규인력과 젊은 경영주의 농가취업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IV>비농가층은 61세 이상의 은퇴농가가 압도적이며 비농업경제활동가구는 4가구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농가유형별 일반적 특색을 살펴보면, <I-a>자립수도작농가와 <I-c>자립시설원예농가는 다른 전업농가에 비하여 경영주가 젊고 부양가족이 적어 가계부담이 낮아 영농활동과 투자에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I-b>자립복합농가는 전체적으로 경영주의 나이가 많고 특히 비동거가족원이 많아 노동력의 유출과 함께 가계부담이 높아 영농활동과 투자가 불리하다. <II>노령농가는 노동력의 쇠퇴로 농업축소나 한계적 이용을 예시하고 있으며 <IV>겸업농가는 다양한 농가는 이루어져 있으며 비교적 건실한 가족노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인 농업유지를 할 수 있으나 비농업 부문과의 경합으로 농업경영의 확대보다는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V>비농가는 <II>노령농가와 <III>겸업농가에서 노령이나 전업으로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전자의 농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농업노동력 조달양식

농업노동력의 조달은 가족노동력, 고용노동력, 품앗이 등으로 구성된다. 급격한 이농으로 촌락의 고용노동력과 품앗이가 감소하고 가족노동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족노동력의 증대는 노동력의 여성화와 노령화를 가져왔으며 심지어 지나친 노동으로 가족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핵가족의 가족농업에서는 노동력은 부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천덕리의 가구당 평균 농업종사자수는 1.7명으로 정상적인 부부노동력 2명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전업종사자가 3명 이상인 가구가 2가구에 불과하고 반면에 단독노령가구가 7가구, 경영주 겸업이 12가

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유형별 전업종사자수를 살펴보면 <I>자립형농가가 2명 내외로 가장 양호하며 이는 정상적인 부부노동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II>노령농가는 1.59명으로 <III>겸업농가 1.33명 보다 수적으로는 많으나 고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열악하며, <II>겸업농가는 전업종사자의 부족을 겸업종사자와 비정기적 가족노동력으로 보충하고 있어, <I>자립형농가보다는 열세에 있지만 <II>노령농가보다는 우위에 있다.

모든 유형의 농가에서 외부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일수는 <I-a>자립수도작농가와 <I-b>자립복합농가에서는 평균 30일 내외이며 <I-c>자립시설원예농가, <II>노령농가, <III>겸업농가는 각각 10.3일, 12.3일, 8.2일로 10일 정도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전자의 농가들은 비교적 경영규모가 크고 재배작물이 수도작과 복숭아 그리고 일부농가의 노지채소로 노동력의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후자농가도 경우 시설재배농가는 노동력의 수요가 연중 고르게 나타나고, 노령농가와 겸업농가는 경영규모가 소규모로 가족노동력을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의 고용노동력과 품앗이로 가족노동력을 보충하고 있다.

품앗이는 일종의 노동력교환으로 공동작업의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였으나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과 수도작에서 기계화의 진전으로 가족노동력이 강화하면서 일일고용과 노동력교환의 중간적 형태로 남아 있다. 농가유형별로 살펴보면 <I-b>자립복합농가와 <II>노령농가, <III>겸업농가는 10일 정도 품앗이에 참여하고 있으나 <I-a>자립수도작농가와 <I-c>자립시설원예농가는 품앗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 유형농가의 작목구성과 가족노동력의 특징에 비롯된 것이다. 즉 품앗이는 가족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비교적 경영규모가 작고 동질적인 작부구성(복숭아재배농가)을 지닌 농가에서 노동력의 일시적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과 농의취업기회의 확대로 인해 대도시 근교외곽 농촌지역에서 농업노동력 조달이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전업가족노동력과 고용노동력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 겸업의 확대와

교통의 발달로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비정기적인 농업노동의 증가하고 있다.⁶⁾ 이러한 현상은 연구지역의 <Ⅲ>겸업농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농업 경영

연구지역은 평균소유면적이 0.75ha로 극히 영세하며 경작면적도 전국의 1.23ha보다 훨씬 낮은 0.92ha이다. 농가유형별 소유 규모를 살펴보면 농가유형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Ⅰ-a>자립수도작농가와 <Ⅰ-b>자립복합농가의 소유규모는 각각 1.12ha와 1.08ha로 1ha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나 <Ⅰ-c>자립시설원예농가, <Ⅱ>노령농가, <Ⅲ>겸업농가는 각각 0.77ha, 0.56ha, 0.62ha로 전자의 유형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유형별 규모 분포도 보면 <Ⅰ-a>자립수도작농가는 1.0ha 이상이고 <Ⅱ>노령농가와 <Ⅲ>겸업농가는 1.0ha 미만에 편중되어 있으며 <Ⅰ-b>자립복합농가와 <Ⅰ-c>자립시설원예농가는 0.5ha-2.0ha 이상까지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농가유형별 규모의 차이는 경작규모분포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Ⅰ-a>자립수도작농가는 평균 경작규모가 1.88ha로 소유규모보다 0.76ha가 많으며 2.0ha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2가구이고 나머지 2가구는 2.0ha 미만을 경작하고 있으나 이들은 연간 수탁작업이 30ha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인 천덕리에서 가장 활발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이 <Ⅱ>노령농가와 <Ⅲ>겸업농가는 평균 경작규모가 각각 0.65ha, 0.66ha로 극히 영세하고 소유규모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지니고 있다. <Ⅰ-b>자립복합농가와 <Ⅰ-c>자립시설원예농가는 각각 1.2ha와 1.07ha로 소유규모보다는 0.15ha와 0.3ha가 많다.

농가경영의 유형과 임차규모는 각 농가유형의 노동력구성과 경영전략, 즉 토지이용방법과 농외취업의 의존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농가유형별 임대차형태와 임차규모를 살펴보면 <Ⅰ-a>자립수도작농가는 1가구를 제외한 3가구가 임차농으로 가구당 임차규모가 1ha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자대농역시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의를 시설재배하는 농가의 부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며 이 농가 역시 농작업수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Ⅰ-b>자립복합농가중 임차농가는 5가구로 평균 8백평을 임차 경작하고 있으며 <Ⅰ-c>집약형농가는 단지 1가구만 1ha를 임차 경작하고 있다. 이들은 임차유는 도시로 이주한 친척이나 외지인의 부탁이 대부분이고 영농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차한 경우는 단지 2가구에 불과하다. <Ⅰ-b>복합형 농가중 동네 겸업농으로 1,800평을 임차한 농가는 고추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Ⅰ-c>집약형농가중 외지인으로 부터 3,000평을 임차한 농가는 자작지를 시설하우스로 변경한 후 식량과 차후 시설영농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기간 임차한 것이다.

<Ⅱ>노령농가는 17가구중 7가구, <Ⅲ>겸업농가는 12가구 중 4가구가 임차농이다. 노령농가와 겸업농의 임차면적은 평균 827평으로 소규모이고 500평 미만의 농가도 전체 11가구중 5가구에 이른다. 이들 임차지는 문중, 이농한 친척, 국유지가 대부분으로 임차료가 시세의 제수마련, 벌초 등의 극히 미미한 액수이지만, 임차농가에게는 식량이란 용도 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대농은 노령농가의 가구주가 질병으로는 2,400평을 동생에게 임대한 경우이고 겸업농의 임대농은 경영주가 정수장 관리원으로 취직하면서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의 부탁을 받고 빌려준 것이다.

표 4. 농가유형별 소유 및 경영면적

(단위:호, ha)

	소유 면적						경영 면적					
	-0.5	-1.0	-1.5	-2.0	2.0-	평균	-0.5	-1.0	-1.5	-2.0	2.0-	평균
<Ⅰ-a>	1	3				1.12			1	1	2	1.88
<Ⅰ-b>	2	5	1	2	1	1.08	1	5	1	1	3	1.23
<Ⅰ-c>		2	1			0.77			2		1	1.07
<Ⅱ>	10	6	1			0.52	4	12	1			0.65
<Ⅲ>	6	5	1			0.62	2	6	2			0.66

자료: 설문조사

연구지역의 일반적인 재배작물구성은 벼+기타, 벼+과수+기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I-a>자립수도작농가에서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과 소규모 과수를 경작하고 있으며 주 수입원은 수도작과 수탁작업료에 있다. 이들은 안정되고 우수한 노동력과 농기계화를 이용하여 임차지와 작업수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농가이다.

<I-b>자립복합농가는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등의 다양한 구성을 지니고 있는 미분화상태의 농가이다. 경영규모가 비교적 크고 노동력이 풍부한 농가에서는 일부 고용노동력을 이용하여 노지채소와 과수에 집중하고 수도작의 경우는 <I-a>자립수도작농가에 완전 위탁경작하고 있다. 반대로 경영규모가 작고 노동력이 열악한 농가는 고용노동력보다는 품앗이에 의존하여 500평 미만의 과수를 경작하면서 수도작은 부분위탁하고 있다. 이들 농가의 주된 수입은 전자의 경우 수도작과 노지채소, 후자는 수도작과 과수이다.

<I-c>자립시설원예농가는 시설원예전문농가로 수도작은 규모가 극히 미미하거나 완전위탁으로 경작하고 모든 가족노동력은 연중 시설원예에 투여한다. 이들은 수확기에 일부 노동력을 고용하고 일부농가는 휴경하거나 노동력이 덜 필요로 하는 작물로 대체하고 있다. 이들 농가의 주재배작물으로는 상반기의 참외와 후반기의 고추로 특히 고추는 연중 4-5번의 수확으로 가장 높은 수확을 가져오고 있다.

<II>노령농가의 주작물재배구성을 살펴보면 벼+기타가 6가구, 벼(보리)+과수+기타가 8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두 농가에서는 참외의 반시설재배에 참가하고 있다. 수도작의 경영은 과수를 경영하지 않은 농가는 일부작업을 품앗이와 부분위탁작업으로, 과수를 경영하는 농가는 수도작은 완전위탁하고 과수는 품앗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영은 자가소비와 도시 거주 자녀의 식량확보를 위한 것인 반면에 과수와 참외는 생계비용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다.

<III>겸업농가는 식량확보를 위하여 소규모의 수도작경영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농가에서 가족내의 노동력 소규모로 과수를 재배하고 있다. 이들의 농업소득은 농외소득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농외소득이 불안정하고, 수도작의 위탁과 가족의 여유노동력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

을 계속하고자 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대 새로운 생산력 요소로 일관기계의 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농가경영의 분화와 적응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농가의 농업경영의 분화의 지배요인과 농가분화의 구체적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밝힘으로써 미래의 지역농업 유지체계를 예측해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자녀의 부분유출로 농가재생산이 극히 미약하여 농업유지에 불안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시내버스가 운행되면서 학생과 20대의 직장인이 도시에 정착하지 않고 회귀하여 통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기간 농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관리작업과 단순작업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지역농업유지 체계에서 이들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2. 이농과 탈농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여성화로 양적·질적 약화를 가져왔다. 또한 판매를 위한 상업적작물 재배의 증가는 노동력의 수요의 증가로 노동의 강도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부족에 대한 대응양식은 수도작에서 기계화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업작물의 재배에서는 가족노동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은 일부농가에 농번기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농가는 성격에 따라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전업농과 가족노동력의 보충을 위한 노령농가로 구별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력은 농외취업이 어려운 50·60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3. 연구에서 농가경영분화의 핵심적 요인은 수도작 부문에서 일관기계화와 이에 대한 일반농가의 대응양식이다. 농업기계화는 농업생산성의 발전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이들은 농기계의 부담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를 임차하거나 농작업의 수탁이 필요했다. 다른 한편, 위탁농가는 각 농가의 인구학적 경제적 특질

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규모 농지를 경작하는 젊은 농가에서는 겸업을 선택한 반면에 장년층농가에서는 가족노동력의 강화와 소규모의 고용노동력으로 채소나 시설재배와 같은 집약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한다.

4. 조사지역의 농가분화양상을 노동력확보와 영농형태에 따라서 자립수도작농가, 자립복합농가, 자립시설원예농가, 노령농가, 겸업농가, 비농가로 분류하여 존재양상을 살펴 보았다. 자립수도작농가는 기계화를 담당하는 농가로서 입차지향의 농가와 수탁지향의 농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복합농가는 미분화된 유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분화될 것이다. 자립시설원예농가는 가장 집약적이고 기술지향의 농업을 유지하는 유형으로 지역농업 발전의 또 다른 축이다. 노령농가는 노동력과 농가경제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농가로 농외취업과 자작 농업경영이 어려워 수탁농가에 의존하여 궁박판매의 생계지향적인 농업을 유지하고 있다. 겸업농가는 농외부문에 취업하면서 생계보장과 높은 지가 때문에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며 수탁농가에 대부분의 농작업을 의존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농가간 농업경영의 분화는 전통적인 농가생애주기적 요인보다는 기계화와 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분화의 양상도 소유관계나 고용관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탁과 위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탁농가는 그 대응양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젊은 수탁전업농가는 생애주기론에서 단순재생산되는 순환적 농가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력의 담당자로서 지역농업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농작업은 지역 전체의 토지이용이나 작부체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간의 개별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수도작의 수탁조직 뿐만 아니라 시설작물의 작목반까지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토지자원의 배분과 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지역농업조직이 필요하다.

< 註 >

1) 본 논문에서 경영의 분화란 인구학적 분화나 계급적 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노동력의 구조와 영농

형태에 따른 농업경영 유형의 분화이다. 영농형태는 농업경영 조직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준복합경영(semi-diversified farming), 복합경영(diversified farming), 준전문경영(semi-specialized farming), 단일전문경영(specialized single farming)의 형태를 의미한다.

2) 자립농 또는 자립경영론은 유럽에서 농업구조개선의 논의과정에서 적정규모론의 생활안정과 소득균형의 개념에서 정책적인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다. 자립경영론은 가족적 농가규모와 능력, 평균적인 능력표준, 적정소득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국가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농업기본법에는 자립경영을 「정상적인 구성의 가족 중에서 전업종사자가 정상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거의 완전하게 취업할 수 있는 규모의 가족농업경영으로, 당해 농업종사자가 타산업종사자와 균형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경영」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업농가라는 통계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겸업농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농사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농사 이외에 돈벌이 또는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연간 누계일수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전업농가의 정의는 「세대원 중에서 겸업종사자가 1인도 없는 농가」로 정의하고 고령 여성 전업농가와 남자농업종사자가 있는 전업농가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농업생산의 중핵적 담당자로서 기간남자 농업종사자(16-60세의 남자세대원으로서 자가농업종사일수가 150일 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를 중핵농가로 정의하고 있다. 정책적 의미에서 전업농은 농업종사자가 타산업종사자와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수준과 정상적인 영농으로 농업종사자가 완전취업할 수 있는 경영규모를 가진 농가로서 농가경제의 잉여를 확대재생산에 투자하고 후계자의 확보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경영체(going-concern)라는 의미에서 「자립농」에 가깝다.(김정호, 김홍배, 1990)

3) 정부 통계상 전업농가는 겸업농가의 상대적 개념이다. 전업농가는 농사에만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와 농사이외의 돈벌이 또는 영업에 종사하더라도 연간 누계일수가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농가이다. 겸업농가는 돈벌이를 위하여 농사이외의 일 또는 영업에 연누계 일수가 30일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농가를 말한다. 겸업농가 중 농업소득이 겸업소득에 비해 많은 농가를 제1종 겸업농가라 하고 반대의 경우를 제2종 겸업농가라 한다.

- 4) 품앗이의 성격변화에 관하여는 최재석(1988: 341-348), 전통적인 농업조직변화에 관하여는 윤수중(1991), 상업화와 공동유대의식의 변화에 대하여는 홍동식(1988), 새로운 생산조직으로서 작목반의 성격과 협업내용에 관하여는 최찬호(1992)를 참고하라.
- 5) 농가의 주부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적 속박에서 농부중, 하우스병, 농촌부인병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연구원(1987)이 전국 농촌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에서 2명을 제외한 1,988명이 1개 이상의 건강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68.8%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답하고 있다.

농가 남편과 주부의 노동시간 비교
(단위: 시간)

구 분	농업노동		가사노동		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	농한기
남 편	11.25	3.56	0.64	0.71	11.89	4.28
주 부	10.69	3.32	4.03	5.30	14.72	8.62

자료: 한국여성개발연구원, 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pp. 44-47.

- 6) 일본에서는 이를 [주말농민], [통근근로자]라 한다. 주말농민이란 반드시 주말에만 귀촌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고향을 떠난 자식세대가 농번기나 부정기적으로 고향에 남아 있는 부모와 형제농가에 얼마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 상황에서 고향과 가까운 도시에 거주하면서 휴식과 정신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고향농촌과 농업생산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개별적인 노동력 보완시스템이다.(荒木一視, 1992)

<參考文獻>

강정일, 강창용, 이성용, 1990, 기계화영농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육성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김홍배, 1990, 전업농 육성과 영농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주, 1992, "현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농촌사회 제2집.

능주위영농합자회사, 1992, 능주위영농합자회사 사업계획서.

도규만, 1992, 농업노동력 구성의 변화와 농업기계화 전개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민선, 1986, "농가가족구조의 변화와 농업생산", 농협조사월보, 제31권 제12호.

박민선, 1993, 1980년대 한국의 농민계층분화에 관한 연구-6개 부락과 사례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찬기, 1992, "겸업농업의 지역분석: 1960-1980", 지리학, 제27호 제1호.

안준섭, 1989, "미작농업의 농작업 수위탁조직에 관한 연구-8개 지역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농협조사월보 제31호 6권.

안준섭, 1992, "영농법인에 관한 고찰", 농촌사회, 제2집.

양희왕, 1984, "농촌경제의 상황과 농민분화", 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오명석, 1983, "농업기계화에 따른 농민경제의 변화", 인류학논집, 제6집.

윤수중, 1984, 노동력이동에 따른 농촌사회의 변화,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윤수중,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산업화에 의한 가족농의 구조적 변화 분석, 농촌경제연구원.

조영국, 1991, 농촌지역의 성격변화와 농가의 가구형태에 따른 농업경영의 성격에 관한 연구-영천군 소재 두 촌락의 사례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최용주, 1988,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농가노동력의 조달양식의 변화", 농협조사월보, 제33호 제11권.

최재석, 1988, 한국농촌사회 변동연구, 일지사.

최찬호, 1992, "작목반 협동의 본질과 전개방향", 농촌사회 제2집.

한국여성개발연구원, 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홍동식, 1988, "농업의 상업화와 농촌사회변동-부락의 공동유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2회, 여름호.

吉田博, 1980, 農業生産共同組織論, 農林統計協會.

大竹秀則, 1983, "群山市ニオケル兼業農家世帯員の農業就業構造", 經濟地理學年譜, 第29卷 第1號.

- 梅川勉 외(신대섭 역), 1983, 농업경제학 개론, 청사.
- 手塚章, 1982, 茨城縣出島村下大津における 自立型農業經營の 性格, 地理學評論 55-12.
- 佐藤由子, 1984, “鳥取縣東部の 兼業農家ト 集落定住”, 經濟地理學年譜, 第30卷 第2號.
- 荒木一視, 1992, “高齢化農村 廣島縣高宮町ニオケル農業維持のメカニズム”, 地理學評論, 65A-6.
- 荒幡克己. 河原昌郎, 1988, 21世紀農業の 經營展望, 農林統計協會.
- Chayanov, A.V. 1986,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 with a new introduction* by T. Shanin. Wisconsin University Press.
- Ellis, F., 1988, *Peasant econom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dmann.
- Marsden, T.K., R.J.C. Munton, S.J. Whatmore & J.K. Little, 1986, “Toward Political Economy of Capitalist Agriculture : a British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10. No. 4.
- Moran, W., 1988, “The Farm Cycle and Enterprise Choice”, *Geographical Analysis*, Vol. 20, No. 1.

Types of a differentiation and Characteristic by Farm Management A Case Study of Ch'ondog-Ri, Nungju-Myeon, Hwasun-Gun.

Gi-Po Nam*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tiation of farm management and adaptation that results from the change of a structure of agricultural labor-force and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mechanization in 1980s. The study area is Ch'ondog-Ri, Nungju-Myeon, Hwasun-gun. The results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are primarily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A dramatic depopulation mostly of the young and men results in weakness of agricultural labor-force. Adaptation styles for the shortage of agricultural labor-force make different appearances in accordance with farm management. Namely, Paddy rice farming accelerates agricultural mechanization, but commercial farming strengthens a family labor-force, in particular, women's labor-force. In addition, Pumasi and co-operation working will fade away soon.

Second, The major factor for differentiation of farm management in study area is the agricultural mechanization, which is introduced not because it makes a profit but because it substitutes for needing of labor-force. Being mostly young and not always rich, they don't secure the optimal size of cultivated area needed for the use of the maximal capacity of the agricultural machine. So they seek to rent land or be entrusted with farm work. On the other sides, Entrusting farmers show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economic characteristic. While a young farmer that cultivates small land selects a part-time farming, A old household carries on intensive farming such as vegetables and green house in strengthening household labor-force

Third, Three types of farmer can be classified into viable farmer, a old farmer, and part-time farmer according to the labor supply situation. And then viable farmers are classified into paddy-rice farmer, diversified farmer, and built-horticulture farmer by land use pattern. Consequently, types of farmer in study area are classified into viable paddy-rice farmer, viable diversified farmer, viable built-horticulture farmer, old farmer, and part-time farmer. Viable paddy-rice farmers that maintain the farm mechanization are divided a rent-oriented farmer and a trust-oriented farmer. Viable diversified farmer are indefinite group. As time goes by, they will fade away. Viable built-horticulture farmers maintain the most intensive and technological agriculture. Old farmers that are hard to farm and go to work in old age entrust some or all part of farm work in paddy rice farming. Part-time farmers that were employed in a non-agricultural part desire to continue being possessed of land and farming dependent on trusting farmer because of safe-guard for living and the high cost of the land.

Fourth, The trust-oriented farmer which consists of young farmers is the center of agricultural continuance in rural area. All the others entrust some or all part of farm work. In particular, Old farmers and Part-time farmers are difficult to keep farming without their helping.

Key Words : agricultural force, agricultural mechanization, types of farm management.

*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ersity